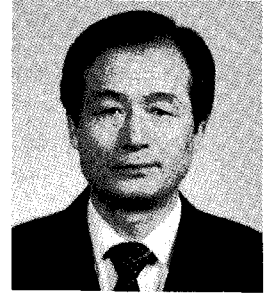


현재의 낙농위기와 대응방안

장 일광

서울우유협동조합감사
한국낙농육우협회이사



1. 상황

세계의 농업은 2차대전후 서방국가들이 식량난을 겪은 뼈저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엄청난 국가적투자와 지원을 지난 30년간 계속함으로써 농산물 과잉을 맞보고 그것은 다시 막대한 재고비용의 투입으로 나라마다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하여 국제 농산물시장은 그러한 과잉재고 농산물의 유출에 의해 교역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된 무역혼란을 빚게하므로서 급기야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적 합동 교역조건에 대한 협상을 제시하였으나 이제 막바지에 와서도 이를 타결치 못하고 수습할 길이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끝내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무자원국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 즉 무역에 의한 국민경제증대의 경우는 농산물에 대하여 무조건 쇄국적태도를 취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서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한 안보적차원의 소위 비교역적 품목에 대하여는 개방을 유보하고 타품목은 유예기간중 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상의 상황이 우리가 대체로 파악하고 있는 농업의 현재위치와 앞으로의 우리가 같갈이 아난가 한다. 여기서 우리 낙농인들은 우리나라 낙농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냉엄한 현실에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낙농의 현재 상황파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쇠퇴와 경영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낙농은 그 노동조건의 열악성과 토지와, 자본의 공급부족으로 현재의 경영조건은 낙농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하여있다.

둘째, 정부의 농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농업진흥 의지결여와 더불어 낙농에 대하여도 이를 끝까지 지키고 진흥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셋째, 위와같은 문제로 우리나라 낙농은 급속도로 그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다면 향후 10년이내 우리나라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 여러가지 문제점

1990년은 낙농사상 가장 심각한 양극현상을 보인다.

불과 10개월사이에 전체 낙농가의 10%가 목장을 포기하였고 젖소도 3.3%가 줄어 들었다.

이와같은 생산기반의 위축은 선진낙농국들이 겪은 바와는 전혀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는데 그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의 지난 30여년간, 일본의 지난20여년간 국민소득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낙농업의 상황변화는 낙농가수 감소, 젖소두수 현상유지, 원유총생산량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났

다. 그러한 변화는 생산기반을 오히려 증가되면서 농가소득 증대,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물론 정부의 대폭적인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이었고 그것은 주로 가격지지, 시설투자지원, 수급안정지원등이었다. 특히 시설투자지원은 자동화, 규모확대등에 집중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낙농상황은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도 마련치못한채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나라 낙농의 당면과제들을 살펴보면 (1)노임상승 및 인력난 (2)지가상승과 도시화 확산 (3)수입개방 불안감 (4)축산환경문제 (5) 조사료의 근본적 부족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과제는 원유의 가격, 수급안정, 집유 및 검사, 수입통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불비등이다.

위에 지적한 당면과제들이 우리 낙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목장경영을 어렵게하는 바로 지난 1년간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한 것이다.

인력난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한 것이다. 그 대응은 기계화와 자가 노동력의 최대 활용 밖에 없다. 따라서 부업적 고용노동에 의한 낙농은 이제 불과 몇년내에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것은 GNP5,000달러를 넘는 과정에서 어느 낙농국가들 모두 겪은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힘으로 또 정부의 지원으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3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

낙농은 그 노동의 열악성, 생산의 복잡성과 장기성, 경영여건의 다양성등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록 우수요소는 많아지고 낙농가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국민전체가 소득이 높아지면 농사중 가장 힘들고 일년내내 자기시간을 낼 수 없는 감옥살이 같은 낙농을 누가 하려 들겠는가?

그러나 우유는 자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제경쟁이 있든 없든 자국내에서 우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우유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나라도 수출을 하기위해서 낙농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EC나 미국같은 낙농대국들의 지난 수십년간 덤핑 상품들이 국제교역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유일하게 뉴질랜드가 수출을 위한 유제품을 생산하지만 세계 낙농생산이 안정되면 낙농생산이 안되는 열대지방국가들에게나 팔 물량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농은 자급할 산업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모든 나라가 낙농만큼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심지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장 개방주장에 앞장선 케언즈국가군의 대장격인 캐나다도 낙농은 예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과 카나다는 양국이 이미 모든상품의 교역을 자유화한다는 협정을 하였으나 여기서도 역시 낙농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낙농은 보호 지원되지 않으면 존립될 수 없고 또 자급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요한 농산물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낙농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부업적 낙농, 축주부재 낙농, 생산성이 낮고 게으른 낙농은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젊고 부지런하고 기술이 있는 낙농가들은 살아남아서 훌륭한 낙농을 살려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신선한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가에게 가장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고 부지런한 농민을 만들기위해서 그리고 식량자급의 맥을 잇기위해서 정부는 지금 낙농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은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좋으나 우선 지금 좌절과 혼돈속에서 젖소를 팔거나, 땅을 내놓은 유능한 낙농가들을 위해서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고 유업체들이 해야할 일이 있고 낙농가들도 해야할 일이 있다.

4. 지구적 노력과 정부지원 및 원유대 현실화

우리 농민들의 부지런함과 기술능력은 세계 어느나라 농민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의 낙농가들의 절반만큼만 지원을 받는다면 벌써 우리 낙농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 가능성은 있다.

우선 가격 지지제도면에서 지금까지 우유가격결정은 낙농가의 소득이나 재생산활동 지원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물가 통제내에서 움추려들어 있었다.

또 가격을 정해두어도 검사, 집유를 일방적으로 행하는 유업체에 조금만 수급이 맞지 않으면 불공정검사, 집유기피등 얼마나 많은 낙농가들이 시달려 왔는가?

우유생산은 장기성일뿐 아니라 갑자기 생산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래교섭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원유가격의 결정은 수급이나 정부물가 정책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항시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89. 5월이후 지금까지 원유 생산비는 조사료비 10%, 인건비 27%, 임차료 15%, 자본이자 8%등 평균 5%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지난 연말까지는 7%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가격적용·조치는 생산비 연동제도를 도입하여 해마다 결정, 시행해야 하며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올해 초까지는 꼭 시행하는 것이 낙농가의 숨통을 터주고 생산기반을 회생시키는 길이다.

원유가격은 수급문제와 수입물량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입물량의 통제와 수급안정 장치가 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원유대를 3년간이나 동결했다가 일시에 대폭조정하게 되면 소비자의 거부반응과 물가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89년 유대인상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내년 추곡 수매가를 조정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매년 소폭 조정해야 함을 당연한 논리이다.

낙농 경영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 가격지원 외에 간접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정부가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1. 낙농서비스 부문

-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
- 세제개선
- 낙농관측
- 유질등급제, 검사공영화(위생등급제에 의한 가격조정)
- 경영개선
- 공공서비스 지원

2. 낙농구조 조정부문

- 낙농전업화 추진
- 낙농시설 용지확보
- 낙농단지 조성
- 환경보전 시설지원
- 용자 지원(기계화, 간접자본투자)

3. 간접 소득지지 부문

- 부족지불제도(우유, 송아지)
- 원유유품지원
- 투입보조(화학비료, 진입로 도로개설)
- 간접무역대책
- 생산성향상 프로그램 지원

4. 낙농안정화

- 비축, 완축, 재고계획
- 생산조정 지원
- 국가 무역지정 등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수반된 상황에서 낙농가는 세계최고의 유질과 최고의 생산성을 구가하는 낙농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급제도에 맞는 자율적 생산조정, 공동기금(자조금)에 의한 우유공동홍보등도 낙농가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에 호응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낙농은 서로 돕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이미 우리 낙농가들이 여러번 체험하고 목장 경영에서도 항상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